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⑲ 차 마시는 환경

'꽃 앞에서 飮茶' 오래된 논쟁거리

싱그러운 연둣빛, 환한 향기와 감미롭고 빈틈없는 차 맛은 눈과 코, 혀로 느끼는 미묘한 차의 세계이다. 그러기에 옛사람들은 '차향이 코끝을 두드린다'고 하였다. 이보다 심신으로 퍼지는 명쾌한 기세를 느끼는 것이 차를 즐기는 가치이다.

차를 마시면, 맑고 따뜻한 다탕(茶湯)이 목젖을 타고 넘어가면서 환하고 시원한 기세가 온몸으로 퍼져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어 머리와 목덜미, 등,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불평했던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고 얼굴과 등에서 촉촉하게 땀이 난다. 부드럽고 얇은 실크로 온몸을 감싸는 듯, 포근하고도 경쾌해진다. 이처럼 차를 마신 후의 변화를 노동(盧仝)은 〈칠완다가(七碗茶歌)〉에서 "(차를 마시니)신선과 통하며, 겨드랑이에서 맑은 바람이 스물 스물 이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심신을 안정 시켜주는 차는 어떤 환경에서 마시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견해는 시대와 나라, 사람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이겠지만, 명대 전예형(田藝衡 1524~?)의 〈자천소품(煮泉小品)〉을 참고할 만하다. 그 내용은 살펴보자.

당나라 사람은 꽃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것을 (차를 마시는)정취를 경감시키는 연유라 여겼다. 왕개보의 시에 금곡원의 아름다운 꽃 앞에서 함부로 차를 다리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마음을 꽃에 두고, 차에 둔 것이 아니다. 나는 금곡원 꽃을 언급한 앞의 글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 잔의 차를 들고 산에 핀 꽃을 보면서 차를 마신다면, 마땅히 차를 마시는 운치에 도움이 될 것이니 어찌 고아주(좋은 술)를 구하겠는가.(唐人以對花啜茶爲殺風景故 王介甫詩云金谷千花莫漫煎 其意在花非在茶也 余意以爲金谷花前信 不宜矣 若把一甌對山花啜之 當更助風景 又何必羔兒酒也)

윗글에 의하면, 당나라 문인들은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차를 마시면, 차를 즐기는 아취가 줄어든다고 여겼다. 이는 송나라 문인들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 글에 인용된 왕개보는 북송대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시문에도 능했던 왕안석(王安石, 1021~1086)을 말한다. 왕개보는 그의 자(字)이다. 반산(半山)이라는 호를 썼다. 그런데 왕안석은 서진 때 대 부호였던 석숭(石崇, 249~300)의 별장, 금곡원에 핀 아름다운 꽃을 언급하였다. 금곡원은 서진 때 최고의 부자였던 석숭의 호화스런 집이다. 관직을 이용하여 향신료 무역을 독점, 막대한 부를 쌓았던 그는 낙양 서쪽에 금곡원을 지어 당대의 명사들을 초대하여 풍류를 즐겼다. 이 무렵 금곡원은 천하의 문장가와 권력자들이 모여드는 사교의 장이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시를 지어 자신의 문재



초의소장품 흑색 다관.

당송代 문인들 차에만 집중
"풍경 · 꽃은 차에 방해" 주장
명대엔 꽃과 어우러짐 강조

를 뽐냈으며 만약 시를 짓지 못하면, 벌주로 세 말의 술을 마셔야 했다고 전한다. 금곡주수(金谷酒數)라는 말은 이로부터 연원되었다. 그러므로 왕안석이 말한 금곡천화(金谷千花)란 석숭의 별장을 장식했던 기화요초를 말하는 것으로, 이 금곡원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아름다웠는지를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당대와 송대 문인들이 차를 즐길 때 아름다운 꽃이나 풍경에 마음을 빼앗기면 차에 집중할 수 없다고 여겼다. 이는 금곡원의 아름다운 꽃 앞에서 차를 함부로 다리지 말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차 한 잔에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니 이를 통해 당송 때에 문인들이 차를 대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다.

차를 대하는 마음은 명대에 이르러 전대와는 다른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전예형의 글에서 확인된다. 전예형은 어떤 인물인가.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여러 지역을 주유하는 과정에서 견문을 넓혔다.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전력도 보인다. 그의 나이 오십에 처음으로 '휘주휴저교유(徽州休宁教谕)'에 제수되었다가 만년에 전당(钱塘)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 그의 삶은 소박한 문인의 전형을 보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가 꽃을 마주하고 차를 마시는 정취는 오히려 차를 즐기는 아취에 도움을 준다고 본 것이리라. 그러므로 당송대의 문인들이 차에 집중하려는 태도를 드러낸 반면 명대에는 차와 자연이 어우러진 풍경에서 차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의 〈자천소품〉에서는 "차는 아름다운 사람과 같다(茶如佳人)"라고 한 당대 육우의 견해를 매우 오묘한 식견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산림에 사는 사람에게는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此論最妙 但恐不宜山林間耳)는 뜻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특히 당송 때에 유행했던 고형 단차나 편차는 연에 갈기 때문에 차의 진미를 손상 시킨다(茶之團者片者 皆出於碾鎧之末 旣損眞味)라고 하였다.

당송 때에 유행했던 고형차는 제다 과정이나 가루를 만드는 공정에서 차의 진미를 손상시킬 수 있는 단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이다. 아무튼 명대 문인 중에는 당송 때에 차보다 명대에 생산된 차가 더욱 좋다는 견해를 보인다. 전예형의 〈자천소품〉에 "다시 기름때를 더하니 가품은 아니다. 모두 명대의 차와 같지 못하다(復加油垢, 卽非佳品, 總不若今之芽茶也)"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바로 명대 문인들은 차의 순수성, 즉 천연성이 보존된 차를 좋은 차로 인식했다(盖天然者自勝耳)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잎차는 몇 번 우리는 것이 합리적일까. 이는 명대 허차서(許次紓)의 〈다소(茶疏)〉에서 "한 호(壺)에 차는 두 순배 차는 마실 만하다. 첫 번째 따른 차는 싱그럽고 맛이 좋으며, 두 번째 잔은 달고 순후하다. 세 번째 잔은 차 맛이 없다고 생각한다.(一壺之茶但堪再巡 初巡鮮美 再巡甘醇 三巡則意味盡矣)"라고 한 것이 눈에 띈다. 이와 유사한 방법은 바로 대흥사 응송 박영희 스님의 일탕법이다. 그는 평생 한 번만 차를 우려내는 탕법을 고수했는데, 이는 차의 진기(珍氣)만을 얻으려는 시도에서 고안된 탕법으로 대흥사에서 연원된 다풍이라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㊳

1. 불교를 인도 전역으로 급속하게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쇼카왕의 업적이 아닌 것은?

① 정법에 입각한 통치를 강조하였다.
② 제4차 결집을 통하여 삼장 즉 대장경을 완성하였다.
③ 사람들을 위하여 길거리에 가로수와 우물을 건립하였다.
④ 불교를 전하는 전법사를 인도 전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파송하였다.
⑤ 부처님의 사리를 재분배 하여 인도 전역에 8만4천의 불탑을 건립하였다.

해설 : 아쇼카왕은 기원전 3세기 최초로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야의 왕으로 정복전쟁기간 동안 벌어진 여러 참상에 불교로 귀의를 하고, 정복지의 여러 종교와 민족을 공정한 법으로서 다스리고자 한 왕이다. 그는 정법에 입각한 통치를 강조하였고, 인도전역에 여러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로수와 우물 등의 건립)를 증장했으며, 불교적으로 볼 때, 불교를 자신의 통치지역 및 교류하는 여러 국가들에 전파하려 전법사를 파송하였고, 부처님의 사리탑을 재정비하고 재분배하여 인도 전역에 8만 4천의 불탑을 건립하였다. 아쇼카 왕 당시에 결집이 있었다는 사실은 남방 상좌부만의 주장으로 다른 불교사서에서 교차검증되지 않는 내용이다.

2. 불기(佛紀)의 기준이 되는 것은?

① 부처님의 탄생 ② 부처님의 출가 ③ 부처님의 성도
④ 부처님의 설법 ⑤ 부처님의 열반

해설 : 불기의 기준은 부처님께서 반열반하신 때를 기준으로 한다.

3. 부처님께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스스로에 의지하고 진리에 의지하라!'라는 말씀을 한 시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싯달타가 태어나서 ②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면서
③ 싯달타가 수행을 시작하면서 ④ 싯달타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⑤ 농경제에서 약육강식의 참상을 본 후

해설 : 자등명 법등명으로 유명한 부처님의 열반유훈이시다. 태어나실 때 하신 말씀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탄생게이시며, 수행을 시작하거나 깨달음을 얻으시고 하신 말씀 등은 여러 경전에서 한결같지는 않다. 농경제에서 약육강식의 참상을 보신 것은 아직 출가 이전 태자이실 때로 나무 아래서 선정에 드시는 일을 행하셨다.

4.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게 되는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시기 전에 비구들을 불러 모아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는 일곱 가지의 법을 말씀하셨다. 다음 중에서 일곱 가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자주 모여 올바른 뜻을 논의해야 한다.
② 법을 받들고 금기를 알며 제도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
③ 바른 생각을 잘 지켜 간직하고 효도와 공경을 으뜸으로 해야 한다.
④ 남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며 명예와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해설 :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는 일곱 가지 법은 소승열반경에 따르면 밧지족이 실천하고 있는 바로서 첫째 정기적으로 자주 모인다, 둘째 화합하여 모이고, 해산하고, 업무를 처리한다, 셋째 공인(합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고, 공인 된 것은 깨뜨리지 않으며 준수한다, 넷째 연장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한다, 다섯째, 남의 처자(재산)을 강제로 가져오지 않는다, 여섯째, 탑묘(전통)를 존경하고 봉납을 철회하지 않는다, 일곱째, 아라한(불교의 성자)들을 법답게 보호함이다. ⑤의 경우 아랫사람은 윗사람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은 없다.

5.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면?

아난다여, 잘 들어라. (a)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b)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내가 열반에 든 뒤. 내 가르침대로 사는 수행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다운 나의 제자요, 제일가는 제자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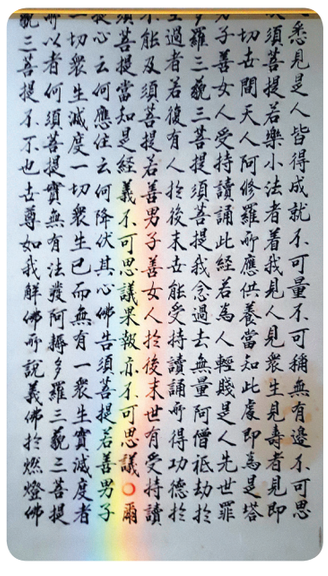
① a : 신 - b : 법 ② a : 부처님 - b : 스님 ③ a : 법 - b : 부처님
④ a : 자기 자신 - b : 법 ⑤ a : 자기 자신 - b : 부처님

해설 : 부처님의 열반유훈으로 위의 문제와 동일한 지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부처님의 법을 등불로 삼으라 하셨다. 그럼으로 a-'자기 자신', b-'법'이다.

정답 : 1. ⑤ 2. ③ 3. ⑤ 4. ⑤ 5. ④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천수 감로수를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투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감로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천수관세음보살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영혼의 세계 빙의
◉ 전생 빙의 퇴마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본인들 입으로 빙의된 영가가 누구인지 말하게 됩니다

신비의 약손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임신이 안되는 분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상담 가능 천광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